

여야, 4·10 총선 선거구 획정 양보 없는 ‘평행선’

국힘 “전북 의석수 현행 유지·비례대표는 46석으로 1석 줄이자” 민주 “전북 1석 줄이려면 부산도 1석 줄이거나 획정위안 받아야”

여야가 4·10 총선까지 43일 남았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불공정한 획정위안에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획정위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빨리 입장을 정해서 오라”고 촉구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우리는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민주당에 이미 통보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 입장을 감안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정수 301석’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애초 우리 당은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불발 시 선거구 획정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전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안 그대로 하자는 건 전례가 없는,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중진 의원 다수도 민주당이 부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협상해 최소한 합의된 4개 특례지역안이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5일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

에서 1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에 잠정 합의했지만, 각자의 ‘뒷발’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북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에서 1석 줄일 것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 감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획정위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국민에게 큰 혼란을 드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 각 1석이 늘어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원안에 대해 “사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우 편파적인 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눈앞에 닥친 총선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선거구를 위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여당과 달리 정말 솔로몬 재판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으로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와서 우리가 획정위 원안을 한다고 하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뭔가. 이번 4월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칭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석수와 선거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못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또 “우리 경제가 IMF 이후 25년 만에 최악”이라며 “서민, 중산층의 삶을 살리고 우리 경제 엔진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에게 경제 희망의 등불을 밝혀줬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친윤·친명계 의원들 후원금 평균보다 많았다

국힘 박성민 1억5000만원 민주 정청래 1억5845만원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의원들이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에서 더 나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202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의원 평균보다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민(1억5000만원) 의원이 평균 후원금을 훌쩍 넘어 친윤계 의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국민의힘 의원 평균 모금액은 1억2640여만원이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은 1억4807여만원, 장제원 의원은 1억4962여만원의 후원금을 각각 모금했다.

친윤계 재선인 이철규 의원은 1억3632만원, 윤한홍 의원은 1억4913여만원이다.

작년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지지를 받고 당 대표로 선출됐던 김기현 전 대표는 1억4991여만원

을 모금했다. 윤재욱 원내대표(1억4995여만원), 장동혁 사무총장(1억4999여만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1억5459여만원),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1억5050여만원) 등 현직 지도부도 평균 후원금 액수를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친명계로 구성된 지도부가 평균보다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 평균 모금액은 1억2688여만원이다.

이재명 대표는 1억4986여만원을 모금했다. 친명계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1억5845여만원을 모았고, 장경태 최고위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은 각각 1억5529여만원과 1억5011여만원을 모금했다.

사무총장인 조정식의 의원은 1억5015여만원,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도 1억5224여만원을 모금했다.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1억5718여만원, 수석대변인인 권철승 의원은 1억5296여만원, 대변인인 강선우 의원은 1억6581여만원이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 역시 1억5101여만원을 모금해 평균보다 후원금 액수가 많았다.

강성 친명 의원 모임인 ‘처림회’(국회 공정사회포럼) 출신인 민형배 의원은 1억5003여만원, 김용민 의원은 1억5436여만원, 김의겸 의원은 1억5163여만원을 각각 모았다. /연합뉴스

민주당 “가계 대출금리 대폭 낮추겠다”

전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부담완화 3중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받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법적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천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은행에 예금저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정신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14일 발표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한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친감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층, 솔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망기업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기업부 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적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